



오늘의 주요기사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장 비서실장에 박영훈 유력... 오늘 도의회 사무처 인사...	1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도의회 사무처장 전길탁 · 원주부시...	2
강원도민일보	08면	[강원도청 국장급 프로필] 최정집 강원테크노파크 파견	3
강원도민일보	08면	[강원도청 국장급 프로필] 전길탁 도의회 사무처장	3
江原日報	02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도의회 사무처장 전길탁	4
江原日報	23면	[강원도청 인사 프로필] 최정집 테크노파크 협력관	5
江原日報	23면	[강원도청 인사 프로필] 전길탁 도의회사무처장	5
		강원도 국장급 인사 단행	6
		강원도, 국 · 과장급 78명 인사...원주 · 태백 · 철원 부단체장 교..	7
강원도민일보	02면	'도민 1호 기부자' 김진태 지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	8
江原日報	04면	최문순 전 지사 “ 알펜시아 입찰방해 어불성설 ”	9
강원도민일보	04면	신경호 교육감 "도교육청 사농동에 남겠다" 잠정 결정	10
東亞日報	16A	강원도 26개 출자 · 출연기관 22개로 감축	11
강원도민일보	01면	새로운 시대, 특별하게 잘 사는 강원도 온다	12
강원도민일보	01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이	12
강원도민일보	02면	오색케이블카 · 미시령터널 연내해결 불발, 결국 해 넘긴다	13
강원도민일보	05면	동해안 해맞이 가능할 듯... 숙박 '만실' 열차 '매진' 행렬	14
江原日報	01면	3년만에 돌아온 겨울왕국	15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청 도내 22곳 속도규제 완화... 안전시설물 보강	16
江原日報	02면	도내 22개 구간 제한속도 상향 ... 내년 13곳 추가	17
강원도민일보	10면	의암호 관광&마리나 사업 2년만에 본궤도	18
江原日報	07면	생산 · 소비 모두 감소 강원경제 한파 오나	19
江原日報	25면	[사설] 영월~양구 내륙고속도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20
江原日報	25면	[사설] 강원인 하나로 뭉쳐 내년은 도약의 해가 돼야	21
강원도민일보	23면	[사설] 남북 대치 접경지 피해 외면 말아야	22
강원도민일보	23면	[사설] 2022년 양극화 해소 및 민심 부응 못해	23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30일 (금)
종합 02면

도의회 비서실장에 박영훈 유력... 오늘 도의회 사무처 인사 전망

강원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내년도 1월 인사안이 30일 발표될 전망이다.

도의회 비서실장에는 박영훈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의정관에는 이병승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의사관에는 유택희 의정관이 거론된다. 1월 인사예선과 장급, 팀장급 가운데 소수를 제외한 인원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지원1·2·3팀은 정책기획팀, 예산분석1·2팀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예산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하반기부터 예산분석팀 신설을 준비해왔다. 이같은 개편은 도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달 채용을 완료한 정책지원관 12명도 2일자로 발령받는다. 이로써 도의회에

는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정책지원관 6명을 포함해 총 18명이 근무하게 됐다. 나머지 6명은 내년 상반기 채용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수(강원도의원 49명)의 1/2 인원(24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도의회 인사심의위원회는 29일 심의를 완료했지만, 의장 결재가 불발됐다.

이같은 배경엔 심의위가 결정한 4급 승진자에 대해 의장이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월 인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단행하는 인사다. 그러나 의회 안팎 예선 일부 인사안을 놓고 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 도의회 최종 인사안이 주목된다.

이설화 lof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30일 (금)
종합 02면

도재난안전실장 양원모·도의회 사무처장 전길탁·원주부시장 김태훈

도, 내년도 국·과장급 인사단행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에 양원모 국장이 발령됐다. 또, 강원도의회 사무처장에 전길탁 경제국장, 원주부시장에 김태훈 국장이 각각 발탁됐다.

강원도는 29일 국·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자다.

교육에서 복귀한 양원모 국장이 재

난안전실장에 임명됐으며, 최기용 문화관광국장은 경제국장으로 이동한다. 문화관광국장에 백창석 국장, 보건체육국장에 윤승기 국장이 발령됐다.

김창규 국장이 산림환경국장에, 박동주 재난안전실장이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으로 발령됐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은 2024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조직위 운영본부장으로, 국장급으로 승진한 박기동 과장이 건설교통국장을 맡는다.

최정집 도의회 사무처장은 강원테크노파크로 파견된다.

국장급으로 승진한 곽일규 균형발전과장이 정책기획관으로, 문영준 산림소득과장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으로 이동한다.

과장급 부단체장 인선의 경우 태백

부시장은 김정운 과장이, 철원부군수는 박경우 도시재생과장이 발령됐다. 신인철 철원부군수는 도에 파견된다.

과장급 전보의 경우, 김권종 서울본부장이 균형발전과장을, 윤우영 과장이 세정과장을 맡았다. 일자리과장에 탁연미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사회재난과장에 임성원 올림픽지원과장, 바이오헬스과장에 전희선 과장 등이 발령됐다.

한편 국장급 교육(1년)은 최승극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배영주 정책기획관, 우영석 보건체육국장, 전재섭 2024조직위 운영본부장, 김경구 산림환경국장과 국장급으로 승진한 정영미 복지정책과장 등 6명이다.

박지은 pje@kado.net

▶프로필·명단 8면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30일 (금)
종합 08면

최정집 강원테크노파크 파견



강원테크노파크로 파견된 최정집 (57) 국장은 강릉 출신으로 강릉고와 강원대를 졸업했다. 7급 공채 출신으로 철원군에서 공직을 시작, 행정안전부 장관실 행정비서관을 거쳐 도에 전입해 도 경제진흥국장, 첨단산업국장을 역임했다. 도의회 사무처장 재직 중 발령받았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30일 (금)
종합 08면

전길탁 도의회 사무처장



전길탁 (55) 도의회 사무처장은 강릉 출신으로 강릉고와 관동대를 졸업했다. 첨단기업유치담당,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숙박운영부장을 거쳐 속초부시장, 도의회 의정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경제국장 재직 중 발령받았다.

江原日報

2022년 12월 30일 (금)

종합 02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도의회 사무처장 전길탁

도 1월 정기인사 단행

강원도는 29일 내년 1월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프로필 23면

도의회 사무처장에 전길탁 국장, 재난안전실장에는 교육에서 복귀한 양원모 국장이 임명되며, 박동주 국장은 감사위원장으로 이동한다.

경제국장은 최기용, 문화관광국장은 백창석 국장이 각각 맡게 된다.

보건체육국장은 윤승기 국장, 산림환경국장은 김창규 국장을 기용했다. 최정집 의회 사무처장은 강원테크노파크, 어승담 감사위원장은 강원연구원 협력·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희성 국장과 손창환 국장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위원회로 파견된다.

이번 인사에서 국장급으로 승진하는 박일규 과장은 정책기획관, 문영준 과장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청 총괄본부장, 박기동 과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각각 발탁했으며, 정영미 과장은 국장급 장기교육에 입소한다. 우영석, 전재섭, 김경구, 배영주, 최승극 국장 역시 장기교육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부단체장의 경우 원주부시장에 김태훈 국장, 태백부시장에 김정운 과장, 철원부군수에 박경우 과장이 결정됐다. 신인철 철원부군수는 강원도 접경지역협력관으로 파견된다.

강원도는 이번 인사에 대해 조직분위기 쇄신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전문성과 연속성, 업무 성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 10월 조직개편과 함께 신설한 특별자치국과 산업국은 도민 중심의 강원특별자치도 실현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전보인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2년 12월 30일 (금)
인물 23면



최정집 테크노파크 협력관

최정집(57) 테크노파크 협력관은 강릉 출신. 강릉고, 강원대를 졸업. 인제부군수, 관광개발과장, 경제진흥국장, 첨단산업국장, 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

江原日報

2022년 12월 30일 (금)
인물 23면



전길탁 도의회사무처장

전길탁(55) 도의회 사무처장은 강릉 출신. 강릉고, 관동대를 졸업.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숙박운영부장, 속초부시장,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 사무처장, 경제국장 등을 역임.

춘천MBC

2022년 12월 29일 (목)
강원

강원도 국장급 인사 단행

내년 1월 1일자

강원도 국장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강원도의회 사무처장에 전길탁,

감사위원장에 박동주,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경제국장에 최기용이 임명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에 박기동,

산림환경국장에 김창규,

정책기획관에 곽일규,

원주부시장에 김태훈이 발령됐습니다.

강화길

KBS 춘천

2022년 12월 29일 (목)
강원

강원도, 국·과장급 78명 인사...원주·태백·철원 부단체장 교체



강원도는 내년 1월 1일자로 도청 국장과 과장급 간부 7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강원도의회 사무처장에는 전길탁 경제국장이, 재난안전실장에는 양원모 국장이, 감사위원장에는 박동주 재난안전실장이 발령됐습니다.

또, 경제국장엔 최기용, 문화관광국장엔 백창석, 보건체육국장엔 윤승기, 산림환경국장엔 김창규 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밖에, 원주 부시장엔 김태훈 부이사관이, 태백 부시장엔 김정윤 서기관이, 철원 부군수엔 박경우 서기관이 각각 부임하게 됐습니다.

박성은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30일 (금)
종합 02면

‘도민 1호 기부자’ 김진태 지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민 1호기부자로 참여한다.

김 지사는 새해를 앞두고 31일 자정을 전후로 진행되는 타종식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앞서 춘천 시청에서 권혁열 도의회의장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퍼포먼스를 갖고, 기부참여 독려에 나선다. 김 지사는 춘천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각 10만원씩 모두 17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타종식 행사를 끝마친 김 지사는 1일 아침 예배와 석왕사 신년법회에 참석하는 등 비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새해 첫날을 보낸다. 또, 김 지사는 2일 오전 충렬탈춤배를 시작으로, 도청 시무식, 차량 무사고 기원제, 신년 기자간담회를 차례로 진행한 뒤 오후 남부노인복지관으로 이동해 급식봉사를 할 계획이다. 정승환

江原日報

2022년 12월 30일 (금)

사회 04면

최문순 전 지사 “알펜시아 입찰방해 어불성설”

“법적·절차적 문제없다” 입장문 ... 검찰 수사 전면 반박

속보=검찰이 알펜시아리조트 입찰과 관련, 잇따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본보 지난 28·29일자 5면 보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지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KH그룹 회장을 사전에 만났다는 문 제제기와 KH그룹이 두 개의 기업으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에 응찰한 과정 등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KH그룹이 두 개의 기업으로 응찰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 알았으며,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대표자가 동일하지 않은 기업이 입찰 보증금과 입찰서를 내면 입찰은 성립된다”며 “조달청은 이를 두고 그룹 계열사간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이라도 법인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는 유효한 입찰이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최 전 지사는 또 “이번 입찰 과정은 국내 굴지의 인수 합병 전문 회계 법인과 대형 로펌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치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진행됐다”고 공개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낙찰자(KH 회

장) 사전 접촉설에 대해서도 그는 “KH 임원과 도지사, 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알펜시아 일반 현황과 매 각 계획 소개, KH그룹의 입찰 참여와 현지 실사 요청 등을 하는 회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KH 이외에도 다른 3개 기업에 유사한 방식으로 공식 제안했으며, 3개 기업이 포기하는 과정에도 전혀 유도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원도는 낙찰기업과 가격을 국가 제도인 온비드(On Bid)에 공개된 후에 통보받고 알았고, 사전 낙찰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이무현기자 trustme@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30일 (금)

종합 04면

신경호 교육감 “도교육청 사농동에 남겠다” 잠정 결정

도청 신청사 맞춰 이전 가능성 타진
도교육계 안팎 당위성 의견 엇갈려
예산 부담·춘천 균형발전 고려

강원도청이 동내면 고은리로청사를 옮기고 그 일대에 행정타운을 짓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현 사농동에 남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감 등 일부 간부 직원들을 중심

으로 강원도청사 이전에 맞춰 도교육청사 이전·신축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부지와 예산, 지역민심 등을 고려해 현 부지에 남기로 잠정 결정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본지와 의 신년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이전하는 행정타운을 조성하면 좋겠으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지금 도교육청 부지가 4만 9500㎡ (1만 5000평)인데,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전 부지는 8만 2000㎡ (2만 5000평)에서 9만 9100㎡ (3만 평)는 돼

야 한다. 고은리 부지를 평당 200만원으로 잡으면 땅값만 600억원이라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차라리 그 돈이면 현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건물을 더 짓는 게 낫다”고 했다. 사실상 고은리 이전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

강원도교육청 이전 때 다른 강북지역 주민들의 민심, 지역 균형발전 등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신 교육감은 “교육청이 떠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현 교육청에서 이전하는 도청까지는 차로 20분이면 간

다”고 했다.

신 교육감은 서면대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고 소양8교 건립,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도 앞으로 크게 개선, 강북지역의 접근성이 강화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나중을 생각하면 오히려 여기(사농동)가 더 부가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교육청 청사 이전이 일부 지휘부 중심으로 논의, 교육계 전반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사안인데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전 필요성과 당위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청 이전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희망했던 행정타운 입주는 사실상 어렵지만 현재 건물이 28년 됐고 증축이 어려운 구조라 앞으로를 생각하면 이전이나 신축은 필요하다”며 “교육계 안팎, 다른 기관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세현·정민영

東亞日報

2022년 12월 30일 (금)

충청/강원 16A면

강원도 26개 출자·출연기관 22개로 감축

조직 슬림화-재무건전성 강화 위해

강원도의 26개 출자·출연기관이 22개로 감축된다. 29일 강원도에 따르면 출자기관 가운데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출연기관인 강원도립극단과 강원도일자리재단은 유사 기관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출자기관 4개는 2개로, 출연기관 22개는 20개로 줄어든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의 민영화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도의 출자금 회수를 통해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원도립극단은 문화재단으로, 강원도일자리재단은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통폐합된다. 이는 기능상 유사 중복되는 기관이나 소규모 기

관은 통폐합해 예산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도다. 도는 통폐합되는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조직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관련 분야 이해관계인,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그동안 낮은 재정 여건에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26개의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면서 매년 400억 원의 도비를 출연해 왔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출자·출연기관 정비를 통해 출자·출연기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 슬림화와 재무건전성 강화 등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30일 (금)
종합 01면

새로운 시대, 특별하게 잘 사는 강원도 온다

2023년 새해를 기다리며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30일 (금)
종합 01면

중앙·지방권력 보수진영 전환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시민들 상생 발전·건강 등 희망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이어
김진태 강원도지사, 신경호 교육감 체
제가 시작됐다. 정부에 이어 지방권력
까지 보수진영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사
회와 강원도는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됐다. 평화와 균형의 가치는 자유와 경
제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가치와
이념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시대를 전제
한다. 그러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해야
할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해안 산불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
재난으로 인한 아픔은 곳곳에 도민 뒀
이었고, 치솟는 물가에 더욱 움츠러들
었다. 나라밖 전쟁 소식과 북한의 도발
이 맞물려 불안감도 높아졌지만 국내
정치는 큰 희망을 주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도 권력 교체에 따른 여러 갈등
요소들을 안고 새해를 맞게 됐다. 반면
손흥민·황희찬 춘천듀오가 결연한 카
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은 도민들에게
도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선사
했다.

이 상황에도 강원도민들은 목은 해
를 보내며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길 한 마음으로 기원했다. 춘천 풍물
시장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 모
(54)씨는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이
어져 요즘 분위기가 다소 침체됐는데
시장이 활기를 되찾아 웃으며 장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이 정선 예미산 기술 지하 1000m, 3000㎡ 규모로 세계 6위급 시설을 자랑하는 '예미랩'.
우주를 구성하는 암흑물질을 연구하기 위한 곳이다. 사방이 차단된 이 곳 지하실험실
에서 IBS(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진은 '보이지 않는' 질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우주의 기원을 찾는 여정은 고단하고 지난하기
만 하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보이지 않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내
딛고 있다. 예미랩을 비추는 저 불빛처럼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서광이 비칠 수 있을까. 이제 그 답을 찾아갈 시간이다. 김정호

다. 양구에서 농사하는 이윤기씨는 "아
무리 생각해도 건강이 최고"라며 "그저
우리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특
히 어머니께서 건강히 오래 지내셨으
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역을 앞둔 장병들은 무사히 사회

에 적응하길 소망했다. 원주에 거주하
는 이모 (23)씨는 "내년 남아있는 전우
들이 건강히 군 복무 마쳤으면 좋겠고
코로나 19로 학교 생활을 즐기지 못했
는데 즐거운 일들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춘천에서 택배 기사로 일하는 이재
성 (45)씨는 "올해 여러 가지 악재로 배
송 물량이 줄어 경제적으로 아쉬운 점
들이 있었지만" "노동자들 모두가 상생
해서 내년에는 힘들지 않은 한 해가 됐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30일 (금)

종합 02면

오색케이블카·미시령터널 연내해결 불발, 결국 해 넘긴다

레고랜드 부채 등 일부 현안 해결
내년초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목
주요 SOC 사업 여전히 지지부진
도 "속원현안 해결방안 모색 최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 강원도의 주요 현안과제가 끝내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민선 8기 도정 출범 첫 해 강원도는 레고랜드 관련 부채 2050억원, 도청사 신축 부지 선정 등 일부 굵직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냈지만 일부 현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최종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민선 8기 들어 재추진을 위한 물꼬는 트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물은 없는 상태다. 김지사는 취임 이후 연내 "환경관련 협의를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업에 대한 강령추진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하

지만 협의완료 시점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다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관련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양양군이 지난 28일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원주환경청은 늦어도 45일 내인 2월10일까지 평가(협의) 결과를 군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환경청이 보완에 동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절차는 2021년 4월 최초 요구 이후 2년 만에 일단락된다.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문제도 결국 이렇다할 결과물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약 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문제를 둘러싸고 수개월간 법적다툼을 벌였지만, 법원 '각하' 결정으로 소득없이 종결된 상태다. 이에 도는 미시령터널과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한 법적 다툼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 2월 말까지 손실보전금(2021년도분) 147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용문~홍천 철도 건설사업과 제2경춘국도 등 주요 SOC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국도교통부는 당초 올 11월 중 용문~홍천 철도 사전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제성 등 보완 등을 위해 용역준공시점이 내년 3월로 미뤄지면서 예비타당성 면제 및 대상 사업 선정 등 향후 절차진행을 위한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

제2경춘국도의 경우 당초 올해 말 전까지 시행사를 선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유찰에 따른 공사방식 변경 및 공고 재진행 등으로 착공시점이 1년 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 속원현안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승환 jeong28@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30일 (금)

사회 05면

동해안 해맞이 가능할 듯... 숙박 '만실' 열차 '매진' 행렬

도 전역 당분간 맑은 날씨 지속
3년만에 행사 개최 관광객 몰려
"31일 주말 겹쳐 예약 마감 빨라"

연말연시를 맞아 동해안 대형 숙박업소와 KTX 교통편 등이 특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동해안 일부 시·군에서 3년만에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정상 개최해 더욱 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대형 숙박리조트 업계에 따르면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진행되는 31일 대부분 예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연일 예약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실제 강릉 세인트존스(940실), 강릉 라이샌드파인리조트(281실), 속초 한화리조트 설악썰라노(756실), 삼척·양양솔비치리조트호텔(1100실)의 경우 전 객실 예약이 완료됐다. A호텔 관계자는 "해돋이 시즌의 경우 매년 예약이 팍차지만 올해는 31일이 주말인데다 3년만에 공식 행사까지 개최하다 보니 유난히 객실 마감이 빨랐다"고 밝혔다. 또 해안가 인근 모텔, 펜션 등 역시 빈방을 찾기 어렵고, 해변 솔밭에 위치해 또 다른 일출 명당으로 꼽히는 강릉연곡솔향기캠핑장의 경우 한 달여전부터 전 구역 예약이 마감됐다.

교통편 역시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강릉 KTX는 31일 예정된 21편의 강릉행 열차 전석이 예약 매진됐고,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모집된 4편의 정동진행 해맞이 특별열차(새마을, 무궁화호)도 대부분 예약이 완료됐다. 동서울~강릉, 강남~강릉행 고속·시외버스 역시 주요 시간대 자리가 꽉 찼다. 코레일 강원본부 관계자는 "기존 운행되던 강릉행 KTX 등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올해는 열차 임시 증편은 하지 않았다"며 "올해 정동진역사는 개방하지만, 안전사고를 대비해 내부에서 일출 관망은 하지 못하도록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해변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강원도 전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해넘이, 해맞이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기상청은 당분간 도 전역이 중국 북부지방에서 이동한 도 부근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오는 12월 31일 해넘이와 1월 1일 해맞이의 경우에도 강원영동은 대체로 맑아 지는 해와 뜨는 해를 모두 볼 수 있겠다. 강원영서는 낮은 구름이 유입돼 구름 사이로 해를 보일 예정이다. 30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14~-9도, 영동-5~-2도, 낮 최고기온은 영서-2~-1도, 영동 4~7도고, 31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15~-12도, 영동-4~-2도, 낮 최고기온은 영서 1~2도, 영동 5~7도로 예보됐다. 이연재·김정호

江原日報

2022년 12월 30일 (금)

종합 01면

3년만에 돌아온 겨울왕국

코로나·이상고온에 멈췄던 지역 행사 일제히 기지개
평창송어·삼척대게축제 잇따라 개막... 안전대책 만전

전국을 멈추게 했던 코로나19와 이상고온으로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강원지역 겨울축제들이 다시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수십만명에서 100만명 이상이 찾던 축제들이 추운 날씨의 도움을 받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오며 지역 상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평창송어축제가 가장 먼저 문을 연다.

30일 평창 진부면에서 개막하는 평창송어축제는 황금송어잡기, 맨손 송어잡기, 송어얼음낚시 등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손님을 맞이한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삼척항 이사부광장에서 삼척 대게축제가 열려 해님이 및 해맞이를 함께한다.

2023년 1월7일에는 십수년간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방문,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한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화천천 일원에서 막을 올린다. 화천군은 산천어축제를 앞두고 지난 24일 화천읍 중앙로 선등거리에 화려한 조명을 밝혔다.

또 1월7일부터 철원 한탄강·고석정꽃밭에서 한탄강얼음트레킹 축제도 시작된다.

이 밖에 제11회 홍천강 뽕뽕축제는 13일 홍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대에서, 2023 대관령눈꽃축제와 제23회 인제빙어축제는 20일 평창 대관령면 송천 일원과 인제 남면 부평리 빙어호 일원에서 각각 개장한다. 태백에서는 27일부터 제30회 태백산 눈축제가 열려 눈의 나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겨울축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기록적인 한파'의 도움으로 3년 만에 겨울축제의 참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년 만의 축제를 앞두고 각 지자체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황봉구 평창송어축제위원장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명록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30일 (금)
종합 04면

강원청 도내 22곳 속도규제 완화...안전시설물 보강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별 운영

속보=도로 여건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속도를 규제해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본지 11월 22일자 4면 등)되자 강원경찰청이 제한속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이 교통심의위원회와 시설물 보강을 거쳐 속도규제를 완화한 곳은 총 22곳이다. 춘천 옛경춘로(철전교차로~송암교차로) 등 네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됐고 원주 태장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

역 18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40km로 조정했다.

원주 동부순환로(단구동 동부교~행구동 화실사거리) 구간은 내년 3월부터 시속 60km로, 강릉 한솔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2곳도 내년 초 시속 40km로 각각 상향될 예정이다.

강원청은 내년 1월 춘천 봉의초등학교와 강릉남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만 시속 30km로 운영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속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신재훈

江原日報

2022년 12월 30일 (금)

종합 02면

도내 22개 구간 제한속도 상향 ... 내년 13곳 추가

◇2023년 속도 제한 상향 조정 구간

시·군	시설명	속도
원주	단구동 동부교~행구동 화실사거리	시속 50km→60km
춘천	봄봄유치원	시속 30km→40km
강릉	울곡초	
	오성학교	
	옥계초	
	한솔초	
속초	상평초 오색분교	시속 30km→40km
	상평초 현서분교	
	상평초 풍수전분교	
	한남초	
인제	서화초	시속 30km→40km
	하남초	
고성	광산초	시속 30km→40km

(자료: 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칠전사거리~송암교차로 등 4곳 '50km→60km' 조정
단속건수·교통량 등 고려 선정... 어린이보호구역 '30km→40km'

속보=안전속도 5030 제한 일부 구역에 대해 '과도한 단속'이란 지적이 제기(본보 7월8일자 5면 보도)된 가운데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제한 속도 상향 조정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강원경찰청은 도내 17.198km에 이르는 22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10km씩 상향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에는 11.552km, 13개 구간도 추가로 올릴 계획이다.

올 7월 강원청은 하루 평균 단속 건수가 최대 50건에 육박해 '과도한

단속'이란 민원이 제기된 구간 중 보행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곳을 제한 속도 상향 조정 구간으로 선정했다. 이어 시·군별 교통심의위원회와 시설물 보강을 거쳐 22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10km씩 올렸다.

시속 50km→60km로 상향 조정이 완료된 구간은 칠전사거리~송암교차로(춘천), 벨로드 사거리~스카이컨벤션웨딩홀(), 태학교 사거리~강변교 삼거리(원주), 가현1교 교차로~갯바위 사거리() 등이다.

시속 30km→40km로 상향 조정이

완료된 스물쨌 구간은 태장초(원주), 영강어린이집(), 청해학교(속초), 양양어린이집(), 태서초(태백), 태백초(), 상장초(), 망상초(동해), 용정초(철원), 대관령초(평창), 도성초(), 하장초(삼척), 미로초(), 산육초(춘천), 춘천시어린이집(), 화계초(홍천), 장흥초(철원), 정금초(횡성) 등이다.

내년에는 스물쨌 12개 구간을 포함해 13곳의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도입됐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 4월 "5030 정책을 완화하

고, 제한 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제한 속도 탄력 운영'을 추진한다. 스물쨌의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시속 30km로 운영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 속도로 운행하게 하는 방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이뤄진다. 강릉 남강초, 춘천 봉의초가 시범운영 대상지역이다.

강원도는 제한 속도 탄력 운영사업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4억원의 예산을 확보, 내년에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로 차량 소통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한 속도 상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30일 (금)

지역 10면

의암호 관광&마리나 사업 2년만에 본궤도

육 시장 기존업체 추진 공식화

투자자 5개사 참여 SPC 설립

토지 매각 재감정평가 예정

속보=춘천시 29일 기존 업체와의 의암호 관광휴양시설&마리나 시설 조성사업 재추진(본지 12월 29일자 12면 등)을 공식화 했다. 내달 사업자와 실시협약(MOA)이 체결되면 의암호 일대 관광유람선 사업을 추진한 지 8년만이자 지난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2년만에 사업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시는 지난 4월과 8월 사업자 측의 지분 문제와 사업의 불확실성 논란이

불거져 MOA가 두 차례 무산되자 책임준공확약 방식 등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단 판단을 내렸다.

의암호 관광휴양시설&마리나 사업은 삼천동 426번지 일대 7만 1244㎡ 부지에 숙박시설, 컨벤션, 마리나 시설, 실내식물원, 에코정원 등을 조성하는 전액 민자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숙박시설은 호텔&리조트 그룹인 반얀트리 15년간 직접 운영한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시공과 운영을 위해 △시공사 책임준공확약 △책임준공관리형 신탁 △토지비

일시금납부 △토지환매 특약 △협약 이행보증금 50억원 △반얀트리 그룹 15년 이상 직접 운영 △10대 사회공헌사업 등을 민간투자자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시는 투자자 5개사가 참여하는 별도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안정적인 투자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LT삼보, KB부동산신탁, 하이투자증권과 같은 건설한 업체가 75%의 지분으로 참여한다"며 "SPC가 설립되면 그 주체가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75%의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 더 큰 행사권을 갖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혈값매각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

영,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재감정평가를 갖기로 했다. 반얀트리의 경우 기존 742객실에서 360객실로 규모가 줄었다. 당초 5성급·4성급·비즈니스호텔 컨셉 3개동으로 구성하려고 했으나 모두 5성급 객실로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육동한 시장은 "춘천은 국제 관광 도시를 표방해 오면서도 5성급은 커녕 4성급 호텔도 하나 없었다"며 "춘천이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체류형 여행도시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등은 이날 공익감사청구 등 강력 대응을 예고, 사업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승은

江原日報

2022년 12월 30일 (금)

경제 07면

생산·소비 모두 감소 강원경제 한파 오나

강원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생산 1.9%·소비 3.6% 감소
건설공사 수주액 70% 급감
새해 전망도 불확실성 커

강원도 생산·소비·출하·건설이
모조리 감소하며 경기가 흑한기에
들어섰다. 더욱이 기업의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체감경기 악화가 본격화
하는 모양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29일 발표한
'강원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도내 제조업과 식음료업종 등을 포함
한 광공업 생산지수는 104.3(2015=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다. 특히 광업 생산만 보면 올해 2월부터 매달 전년 대비 감소 추세다. 세부 업종별로는 식료품이 16.3% 감소하고 전기장비도 35.7% 급감했다.

강원지역 11월 출하지수는 105.8로 1.1% 줄었다. 자동차, 의약품 등에서 출하가 증가했지만, 식료품, 전기장비, 1차 금속 등은 감소업종으로 분류됐다.

소비자들의 지갑도 팍 닫혔다.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가전제품 등 고가의 내구재 판매가 부진했고 11월 기후가 온화했던 영향으로 동절기 의복 판매도 줄었다. 음식료품 판매는 늘어났지만, 음식료품 가격이 올라 소비된 금액 자체가 커진 착시 효과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또 11월 강원지역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액은 2,16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9% 급감했다. 올 10월(25.4%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큰 폭의 내림세다. 도로·교량

등의 공공 발주가 끊겨 토목 부문에서 91.2%의 큰 감소세를 보였다. 신규 주택 수주가 줄어들면서 민간부문 수주액도 70.9% 감소했다.

여기에 도내 재고 상황도 나빠졌다. 1차 금속, 자동차, 비금속광물업체 등의 재고가 늘면서 도내 제조업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했다.

최덕진 강원지방통계지청 팀장은 "강원지역 제조업체 재고가 계속 쌓이고 각종 산업활동 지표들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새해 전망도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동희기자**

江原日報

2022년 12월 30일 (금)

사설/칼럼 25면

영월~양구 내륙고속도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영월~정선~평창~홍천~인제~양구를 잇는 ‘강원내륙고속도로’ 사업에 국비 각 3억원(사전타당성 용역비)이 반영됐다.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다. 1999년 국가 최상위 계획에 처음 포함됐지만 이후 20여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었던 지역 숙원 사업이다. 도내 사업 구간 136km에 추후 경북 봉화~영양~청송~영천 구간(173km)까지 완공되면 강원 접경지부터 부산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남북종축고속도로가 완성된다.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사업비 규모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강원 구간 사업비는 6조5,416억원이다. 경북 영천까지 연결할 경우 14조8,800억원까지 급증한다. 그러나 건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국내에서 가장 낙후한 접경지와 폐광지를 이어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필요성은 그 어느 사업보다 크다. 또 내륙지역과 동서남해안벨트와의 연계 발전 차원에서 타 시·도에서도 강원내륙고속도로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이미 경북은 강원도와 2012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업무협약(MOU)까지 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등 26개 시·군으로 이어지는 내륙첨단산업벨트와 설악·태백산·소백산·덕유산·지리산 등 28개 시·군을 잇는 백두대간벨트를 연결해야 한다. 이 벨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강원내륙고속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1999년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전국 10×10 국가고속도로망에 반영됐으나 유일하게 진척이 없는 노선이다. 교통지도를 펴 놓고 보면 도내 내륙 교통 인프라가 얼마나 초라한지 금방 알 수 있다. 강원내륙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이행 의지가 중요하다. 2026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사업으로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사업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비가 막대한 것 같지만 연차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만큼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내륙 접경지와 폐광지를 관통하는 사업이다. 경제 논리를 내세워 비용편익만 따지기보다는 전향적인 접근으로 강원도와 내륙지방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강원권의 교통망 확대와 더불어 남북종축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바란다.

江原日報

2022년 12월 30일 (금)

사설/칼럼 25면

강원인 하나로 뭉쳐 내년은 도약의 해가 돼야

2022년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저물고 있다. 지난 1년간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다.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정부가 올 5월10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가 억누르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남긴 부동산 문제도 큰 부담이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분열은 심각하다. 전 정부의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령 당선 후 꾸준히 비난과 도발 수위를 끌어 올린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감행할 태세다. 세계 정세는 냉전전이라 할 정도로 복잡하고 불안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모두 새로운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10월29일 밤 10시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나 158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 2014년 304명의 목숨을 앗아 간 세월호 사태 이후 역대 최대 참사다. 정치는 제 역할을 못 했고,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은 한 해였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진보에서 보수로의 '권력 이동'이었다. 이는 국민적 선택이었으나

정치권은 통합보다는 분열을 노정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되풀이되던 신·구(新·舊) 정권의 갈등은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정치와 정치권은 지나간 시간을 겸허히 되짚어 봐야 한다. 국민을 끌고 가는 것도 정치이지만 고달픈 국민의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도 정치다.

새해를 맞으면서 여야는 너나없이 상생, 민생을 약속할 터다. 올 한 해 국회와 정치를 바라보면서 국민에게 쌓인 게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다면 그 다짐도 허언이 될 수밖에 없다.

올 10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착공

내년 6월11일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출범

역동적인 활동으로 희망을 담아내야 할 때

강원도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도는 정

도 628년 만인 2023년 6월11일부터 특별자치도로서의 새 역사를 열게 됐다. 그동안 군사 산업 농업 환경과 관련한 각종 규제로 발전에 번번이 발목이 잡혀왔던 강원도는 이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됐다. 여기에서 10월18일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 착공식도 개최됐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등장한 지 35년 만이다. 2027년 완공되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15분에 도착한다.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도 본격화되고 제천~삼척 고속도로 추진도 확정됐다. 오색케이블카 역시 속도가 붙고 있다. 강원도는 새해에도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야 한다. 그래서 희망과 번영이 가득한 강원도가 돼야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30일 (금)

사설/칼럼 23면

남북 대치 접경지 피해 외면 말아야

-북도발 따른 안보 관광 중단 빈번, 경기 악화일로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도발이 이어지면서 접경지역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한강 일대와 김포·서울 상공을 비행한 데 이어 4대가 추가로 인천과 강화 일대를 떠다녔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북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도내 접경지 주민과 상가의 고충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현안은 지역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안보 관광의 잦은 중단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고성 통일전망대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휴관했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는 지난 6일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포격도발 당시에도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일에는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고성 통일전망대를 비롯해 철원군 DMZ 생태평화공원인 제군 DMZ 테마 노선이 문을 닫고 직원들을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서 철수시켰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는 올해 벌써 7번째 폐쇄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보 관광시설 운영 중단은 접경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성 통일

전망대 인근 주민들은 매출 하락으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겨울엔 하루 평균 300여명의 관광객이 통일전망대를 방문했지만, 시설 폐쇄 조치로 방문객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음식점과 숙박시설, 카페 등 상가는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연말연시 해님이 해돋이 관광객들이 이러한 조치들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고성 접경지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각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성지역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액이 14년간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관광 재개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의 남북 대치 국면에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더해져, 경기는 악화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 대치와 긴장에 따른 1차 피해가 도내 접경지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번한 출입 통제와 운영 중단은 주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인들은 영업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할 형편입니다. 정부는 남북 관계 경색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피해받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의 고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2월 30일 (금)

사설/칼럼 23면

2022년 양극화 해소 및 민심 부응 못해

-경기악화와 사회적 참사 속 강원특별자치도 돌파구 마련

코로나19 대유행이 마감되면서 경제 회복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 숨통을 조인 2022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으나 국민 기대치와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은 물론 현대의 사회적 참사가 발생해 큰 슬픔을 남긴 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의 극적인 합의로 여망해 온 강원특별자치법이 통과돼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도와 정치권이 협력해 내년도 사상 첫 국비 9조원시대를 열게 된 것도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새 도정과 의회가 비전을 보여주기에 촉박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김진태 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발언과 문이 3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미래를 향한 긍정적 논의를 압도한 것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도비 2050억원을 투입해 일시에 갚고, 회생 신청 철회로 마무리되기까지 가까운 에너지를 흘려보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강원지역 현안이 부각됐으나, 여전히 해법의 길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겨 아쉽습니다.

접경지, 폐광지, 동해안 등 지역마다 당면한 숙원사업을 또다시 다음해

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북방물류시대를 기대하며 착공한 동해북부선 사업은 좀처럼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규제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온 접경지 주민들은 수의계약 유지를 요구하며 성명 발표와 시위 등 다각적으로 대응했으나 희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부들 어남북관계가 대화가 아닌 냉전 상황으로 바뀌며 악재로 등장했습니다. 고성군의 경우 통일전망대는 올해만 해도 7회 운영 중단되면서 상경기악화와 주민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인상으로 인한 고통이 컸다면 내년은 경기 침체 및 악화가 눈앞에 현실이 되면서 더 걱정하게 됩니다. 당장 내년 1월 중소기업계의 경기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무려 17.5포인트나 주저앉았습니다. 도민 일자리부터 건강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표는 여전히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도권과의 격차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노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초단기직에 몰리는 현실이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해를 넘기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 초안이 나와 논의 여지를 마련하고, 도청사 신축 부지를 고은리로 재결정한 만큼 새해는 강원도의 역동성이 제대로 발휘돼야 합니다.